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68**  
APR 23 2021

**발간년월** 2021년 4월 23일 (통권 제16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 영 태 **총괄** 이 주 호 **감수** 최 재 선 **담당** 김 엄 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시아 북극 : 현재와 미래 국제포럼' 지상 중계
- 러 5개 북극 지역 정부, 북극항로 범위확장 제안
- 러 전자 상거래 시장, '25년에 11억 루블로 성장

## 주요 통계

- 2021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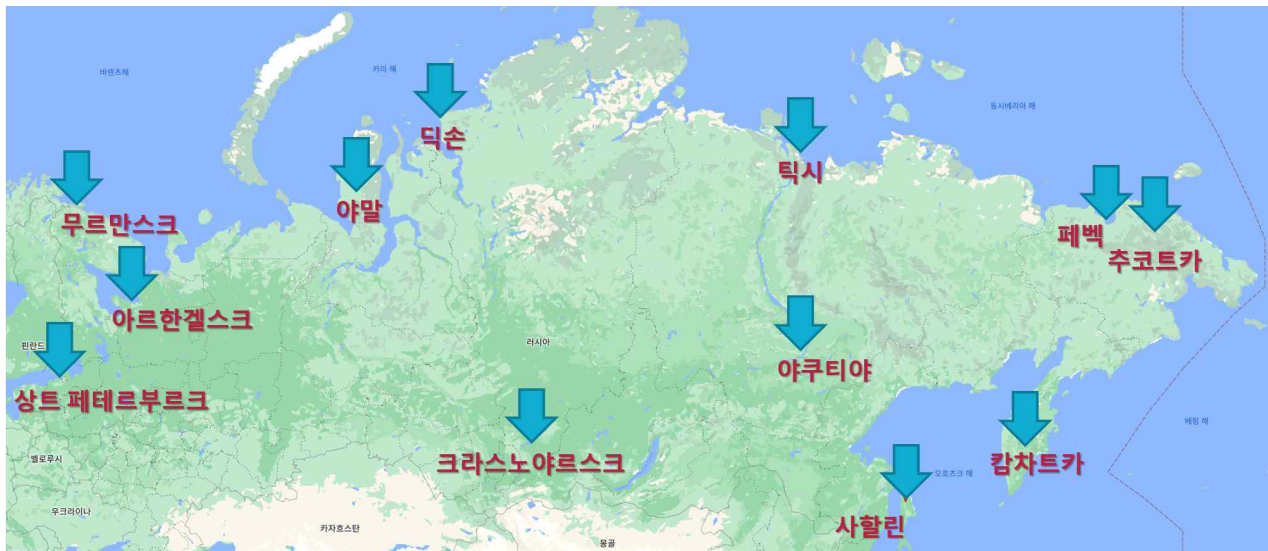


## 주요 동향



### ‘러시아 북극 : 현재와 미래 국제포럼’ 지상 중계

그림. 북극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위치



자료: google Map

#### ■ 러시아 북극 지역 대형프로젝트 추진

-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10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북극 : 현재와 미래 국제포럼’에서는 북극 지역 개발과 북극 항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북극권 개발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 특히 이 포럼에서는 러시아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북극 고속도로의 개발 전망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논의되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 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북극 지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그는 무르만스크주의 ‘북극의 수도’ 선도개발구역에서 5개의 대규모 프로젝트(총 투자액 2,200억 루블 이상)가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코브도르스키사(Kovdorsky GOK)의 개발 프로젝트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극동·북극개발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 이와 별도로 아르한겔스크 파블로브스코예(Pavlovskoye) 개발 프로젝트에 70억 루블의 연방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야말에서는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야말 LNG에 버금가는 최소 5개의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시행될 예정임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도 새로운 석유 개발 프로젝트인 ‘보스톡 오일(Vostok Oil)’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이미르 반도의 시라다사이키(Syradasaysky) 지역의 인프라 건설사업도 시작되었음
-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프로젝트들로 인해 조선, 기계공학, 건설 및 자재 부분의 수 백 개 러시아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00개 기업이 9만 5,000명을 고용하여 노바텍의 북극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20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연안 지역의 자원 개발 관련 개인 투자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러시아 정부에 제출되어 모든 주요 부서의 지원을 받게 됨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 북극항로의 최소 물동량을 8000만 톤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북극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함
-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2021년부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거주자 대출금리 보조(정부 부담, 대출금리 최대 7% 인하), 환경과 녹색 기술사업을 위한 대출금 보조, 임대 지원, 특수 북극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북극 지역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함

## ■ 북극항로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 분석

- 블라디미르 파노프(Vladimir Panov) 로사툼(Rosatom) 특별대표는 북극항로의 경쟁력의 측면(화물선 현황 및 개발사항, 운송, 물류 위험 해결방안)을 강조하며 북극항로의 경쟁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주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43척의 북극 전용 선박이 북극 수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엔 북극전용 선박 59척 건조하는데도 2030년 기업발표와 화물운송계획에 따르면 48척이 부족할 수 있다는 수치를 인용하였음
-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 북극 화물선이 4만 톤 이상의 Arc7급 선박이며, 해당 선박의 건조는 대부분 노바텍,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 가스프롬 네프트(Gazpromneft)에서 건조함
- 블라디미르 파노프(Vladimir Panov)는 ‘작은 항로의 경제’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관련 모든 프로젝트 이행 시 남쪽 항로 대비 운송 효율성 30%이며,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쇄빙 작업이 필요한 부분과 2개의 물류 수송 거점

건설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언급하면서 북극에서 일본으로 LNG 생산 및 인도 가격이 경쟁력 있을 것이라 덧붙임

- 또한 중요한 문제는 북극항로의 선박 및 화물 보험과 관세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북극항로의 관세는 다른 항로에 대비하여 24%로 높으며, 프리미엄급 보험료 기준 남쪽 항로와 비교하여 100% 높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물류 위험 해징 처리에 따라 북극항로 보험료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표명함
- 북극의 해상 터미널의 총 수용 능력은 3,282만 톤으로, 6년 전과 비교할 때 8배 증가, 2024년까지 물동량은 8,5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북극항로 동쪽 노선의 연중 운항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20년에 러시아 로사톰(Rosatom)은 북극항로의 이용자들에게 정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해양운송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2021년~2022년 로스코스모스(Roscosmos) 위성 발사에도 이용될 예정임
- 현재 이곳은 콘도르-에프케이에이(Kondor-FKA) 위성 2개, 오브조르-알(Obzor-R) 위성 1개가 14시간마다 북극항로 전체 레이더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러시아 산업 통상부, 기상환경감시청(Roshydromet), 로사톰(Rosatom)과 함께 선박에 설치되는 얼음 내비게이션 장치(해당 장치는 정보를 해양 작전본부에 직접 전송 후 추가 처리하여 북극항로의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됨) 작업을 통해 북극 항로의 경쟁력과 효율성 지표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북극 관련 정부 지원과 발전산업 부분

- 알렉세이 베스프로즈반니흐(Alexei Bezprozvannykh)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북극 특정 지역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산업에 대해 발표함
- 북극항로를 통해 연중 LNG를 동쪽 방향으로 수송을 위한 대용량 선박 건조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북극 LNG-2 사업용 가스운반선 15척과 MR형 가스 운반선 3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할 예정이며, 2021~2023년 총 투자액을 316억 루블로 예정하고 있음
- 2015~2019년 사이 러시아 정부는 다용도 쇄빙선 8척을 건조했으며, 프로젝트 22220에 따라 핵 추진 쇄빙선 5척이 건설 중이며 러시아 핵 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Arktika)'호가 11월 첫 항해 쇄빙 시험을 시작했고, 나머지 4척은 2025년까지 시행할 예정임
- 2027년 12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추진 쇄빙선 "리더(Leader)"를 시운전할 계획이며

1차, 2차 연속 핵 추진 쇄빙선 건설은 2023년과 2025년에 시작하여 2023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 북극 개발은 내비게이션, 화물 운송, 탄화수소 개발을 위한 지질탐사 등 첨단기술과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통상부는 관련 국내 기기를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과학기술센터 "인터내비게이션(Internavigation)"을 기반으로 "로사톰(Rosatom)"과 "알마즈 안테이(Almaz-Antey)"는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GPS 글로나스(Glonass)의 대안인 독립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실험하고 있음
- 또한 전파 항법장치 "차이카(Chaika)"와 현지 내비게이션시스템 "콘술(Consul)"를 테스트할 예정이며, 국가산업발전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 시스템의 무선 전자 장비제작 관련 연간 8억 3,630만 루블을 지원함
-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마게(MAGE), 로스지오로지아(Rosgeologia)에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2019년~2020년 사이에 마게(MAGE)에서 12억루블이 넘는 바닥 지진 응답기와 관측기기를 공급하였고, 2019년에는 국방부와 15억 루블 상당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까지 외국의 지질 탐사 장비를 대체한다는 방침임
- 또한 산업통상부와 가즈프롬(Gazprom)과의 협정으로 수중생산단지(MPC)의 국산화 작업을 위해 장비개발 관련 35억 루블의 최우선 연구 개발 작업비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러시아 60개사에 할당됨

## ■ 2030년까지 수행할 북극 물류 개선 사업

- 데니스 우샤코프(Denis Ushakov) 해양 및 내륙수운청 부청장은 북극항로의 화물 운송 보고서를 제시하며 2020년 11월 북극항로의 운송량이 3000만 톤(2020년, 3298만 톤)을 초과했으며 2019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2030년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따르면 17척의 구조선(18MW 쇄빙선, 7MW 구조선 포함)과 딕손(Dikson), 틱시(Tiksi), 페벡(Pevék) 항만 현대화를 통해 항해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임

## ■ 북극항로 디지털 서비스통합 플랫폼 구축

- 막심 쿠린코(Maxim Kulinko) 로사톰(Rosatom) 북극항로국 부국장은 2021년 4월 북극항로 디지털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북극 수역의 수로, 기상, 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음



- 그는 로사톰(Rosatom)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노바텍(NOVATEK), 노릴스크니켈(Norilsk Nickel),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교통부, 운송업체와 협력을 통해 단일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함

## ■ 무르만스크의 환승 허브 프로젝트(MTU)

- 콘스탄틴 돌고프(Konstantin Dolgov) 러시아 경제정책 연방위원회 부회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북극항로가 세계에 주요 수송 루트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항로에서 북극항로로 세계 경제, 교통이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언급함
- 특히, 북극항로의 시작이며 최대 부동항이자 핵 쇄빙선 기지인 무르만스크에 주목하며 러시아 연방 상선 해양법 제5조 개정을 통해 쇄빙 활동 증가시킬 계획이며 해상과 육상운송을 결합하여 북극항로가 북극 지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무르만스크 환승 허브 프로젝트(MTU)를 시행한다고 강조함
-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모두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는 항구 수용력을 연간 900만 톤, 2단계는 연간 1,8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또한 석탄에 대한 서유럽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동양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운송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북극항로와 무르만스크 항의 환승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물질 비료 환적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방침임
- 이와 함께 2026년까지 35억 루블을 투자하여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수산물 수송을 위한 우다르닉(Udarnik)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
-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해안 석유 환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간 3,500톤 규모의 석유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러시아 경제정책 연방위원회 부회장은 북극항로에 컨테이너 허브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국제물류 시스템 제작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예상 투자금액은 40~50억 루블임

## ■ 극동 지역 캄차카 항만 개발 프로젝트

- 에브게니 체킨(Yevgeny Chekin) 캄차카 부의장은 캄차카가 유럽, 동아시아, 북미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해상 항로에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심수지역인 아바차 만은 연중 이용이 가능할 경우 물류 복합 단지 허브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그는 동시에 이를 위해 추코트카, 사할린, 마가단의 화물 운송 개발과 극동 지역,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
- 오늘날 캄차카는 어업 위주의 경제로 하역 시간 증가, 선적 전 냉장 보관시설 부족, 블라디보스톡항의 지연 등과 같은 이유로 배송비가 증가해 제품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캄차카 지방정부는 무르만스크와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캄차카(Petropavlovsk-Kamchatsky)에 최신식의 허브포트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5억 루블을 투입하는 석유제품의 보관 및 저장을 위한 “해양 표준 병커”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노레보(Norebo) 사에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30억 루블을 투입하여, 세로글라즈카(Seroglazka) 터미널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40억 루블을 들여 연간 최대 600톤 용량의 벌크 및 일반화물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 운송 냉장/냉동터미널 “캄차카 자유항”을 건설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10억 루블을 투자하여 자보드스카야(Zavodskaya)만 근처의 운송화물 터미널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 2022년에는 베체빈카(Vechecinka) 만에 1,000만 톤 규모의 노바텍(NOVATEK) 해상 LNG 터미널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총 투자액은 1,100억 루블임

## ■ 극동 개발기금의 북극항로 화물량 전망

- 마고메드 게하에프(Magomed Gekhaev) 극동 개발 기금대표는 2030~2035년 북극항로의 화물 수송량을 예측하였으며 도전적인 전망으로는 연간 193만 톤에서 2억 5,500만 톤으로 증가, 낙관적인 전망은 1억 8천 8백만 톤에서 2억 7,000만 톤으로 증가, 기준적인 전망은 연간 1억 5,800만 톤에서 1억 7,700만 톤이라고 예측됨
- 현재 동쪽과 서쪽 중 어느 방향으로 운송될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캄차카에서 동쪽으로, 무르만스크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인프라 결정과 쇄빙선 사용계획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임
- 기존 쇄빙선 함대 건설 계획은 화물 운송량의 70% 이상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타남
- 로사톰(Rosatom)과 교통부는 연방 행정국과 협력하여 1~2년 내 북극항로 내 운송을 위한 디지털 모델을 준비 및 구축할 것임

## ■ 해양작전본부, 북극 상황 모니터링 시행

- 2020년 10월 21일 무르만스크에서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22220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Artika)호의 계양식에 참석하였으며,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된 해양작전본부 아톰플롯(Atomflot)에서 북극개발 관련 간담회를 가짐
- 스타니슬라브 골로빈스키 (Stanislav Golovinsky) 부사령관은 자동 제어시스템은 2019~2020년 사이에 구축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은 수역 정보 수집, 선박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 빙하 정보 수집, 선박 항로 설정 등 북극의 현재 상황을 보고해주는 시스템이라 설명함
- 해당 시스템은 항만을 통한 수출입 규모 데이터를 제공하며, 2014년부터의 모든 선박과 화물의 흐름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송출 가능함
- 부사령관에 따르면, 2022년 아톰플롯(Atomflot)에 관제 데이터가 처리되는 정보 적시성을 위한 단일 파견 관제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센터에서 해상 안전, 상업 및 물류, 빙하정보, 고객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임

## ■ 북극항로 쇄빙선 건조사업도 착착 진행

- 바실리 스트루고프(Vasily Strugov) 로스모르포트(Rosmorport) 부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쇄빙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쇄빙선을 39척으로 늘리고 주요 운송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장을 위해 총비용 700억 루블이 넘는 10개의 쇄빙선(18MW 쇄빙선 2척, 백해-발트해에서 운영할 예비 쇄빙선 7급 12~14MW 2척 포함)을 건조할 예정임
- 로스모르포트(Rosmorport) 쇄빙선은 연중 내내 15개의 항구 이용이 가능하며, 2019년 디손(Dikson) 쇄빙선은 해양 부유식 원전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를 무르만스크에서 페벡으로 견인했으며, MOSAiC 연구 프로그램 일환으로 북극 표류 기지에 보급품, 승무원, 과학자를 파견했음
- 콘스탄틴 크냐제브스키(Konstantin Knyazevsky) 로사토프로트(Rosatomflot) 대표는 발틱 조선소와의 협력과 프로젝트 22220 쇄빙선 건조에 대해 발표하면서 첫 건조 선박은 이미 로사토프프로트로 옮겨졌으며, 현재 발트공장이 나머지 핵 추진 선박 4척을 건조하고 있음
- 2016년 로사토프프로트는 예인선 “푸르(Pur)”, “탐베이(Tambey)” 를 인도받았으며, 2020년 11월 20일 즈베즈다 조선에 “리더(Leader)” 쇄빙선을 건조하는 한편, 22220 프로젝트 관련 다른 연쇄 쇄빙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2020년 말 기준 “시베리아” 완성도는 81%이며 핵연료를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두 번째 쇄빙선 “우랄(Ural)”의 기술 완성도는 61% 정도이며, 시 운전일은 2022년 9월이고 “야쿠티아(Yakutia)”의 경우 기술 완성도는 9%이며 “추코트카(Chukotka)”는 건조 중임



- 쇄빙선 비용의 60%는 장비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러시아산 장비로 건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 야쿠티아의 노후선 대체 건조 프로젝트

- 아파나시 사빈(Afanasiy Savvin) 야쿠티야 개발공사 사무총장은 야쿠티아가 북극발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2020년 말 올레네크스키 우루스(Oleneksky ulus)에 초고속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었고, 2020년 30만톤 이상이 내륙 수상 운송을 이용하였고 6만톤은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되었다고 발표했음
- 내륙 운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레나강 유역의 선박 700척 중 50척 이상이 60년 이상 운행된 선박이며, 이에 자타이스카야(Zhatayskaya) 조선소 재건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해당 프로젝트 비용은 약 57억 루블로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해당 조선소는 최대 10척의 선박을 건조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조선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함
- 내륙 수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선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레나강 다리 등 다양한 구조물 생산과도 연결이 되어있어 야쿠티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와 경제협력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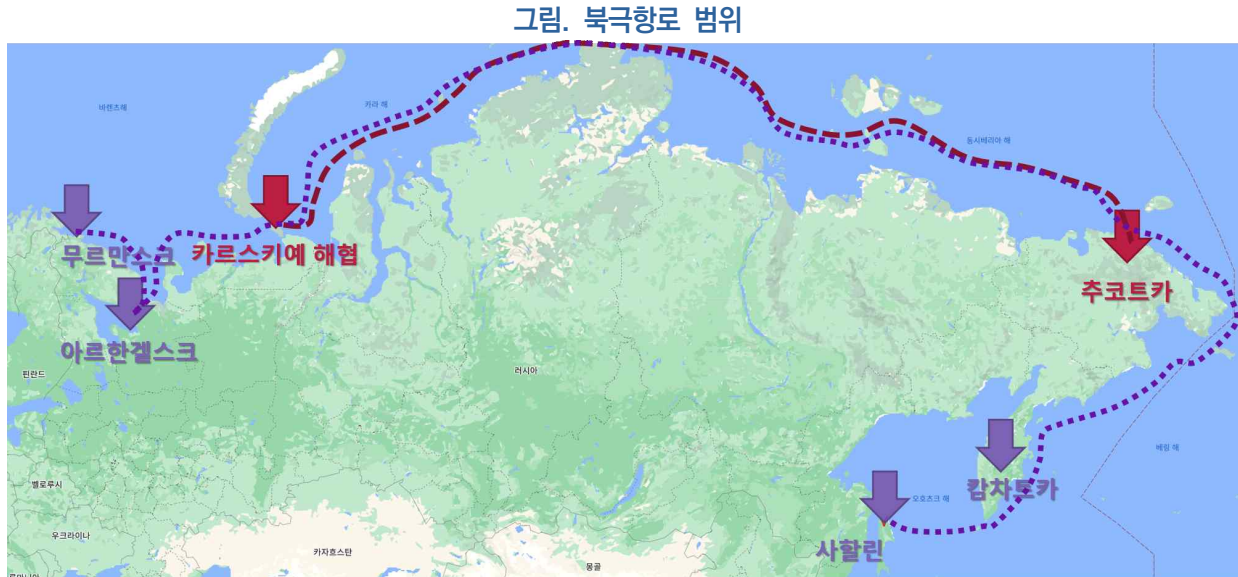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themes/1698/88960/\(2021.4.20. 검색\)](http://www.morvesti.ru/themes/1698/88960/(2021.4.20. 검색))

## 러 5개 북극 지역 정부, 북극항로 범위확장 제안



자료: google Map

주: 붉은 선: 기존 북극항로 범위, 보라색: 제안된 북극항로 범위

### ■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5개 주 정부, 현재의 북극항로 수역 확대방안을 제안

- 현재 북극항로는 카르스키에 해협(Kara Strait)에서부터 추코트카까지이며, 해당 경계선은 러시아 상선법에 따라 결정되었음
- 해당 주 정부들은 서부 지역의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극동지역의 추코트카, 블라디보스톡까지 북극항로 수역으로 포함한다면, 국내 연안운송의 활성화, 물류체계의 다변화, 북극항로 상용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수립된 북극항로 개발계획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할린, 캄차트카에 소재한 교통물류 및 산업 인프라를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음
- 해당 지역 대부분은 철도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물류 인프라 개발 수준이 낮아 연안 운송을 통해 물류가 이루어지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연안운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 국내에서 안정 정적인 화물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무르만스크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없어진 철도관세 혜택을 다시 제공하거나, 쇄빙선 에스코트 비용을 낮추거나 혹은 쇄빙선 없이 항행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는

등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북극지역에 있는 모든 항만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 ‘GEKON’ 컨설팅 대표는 북극항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극 지역에 소재한 모든 항만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 다만 그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화물을 기반으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 예브로힘(Evrokhim) 사는 북극항로를 통해 철광석 원료(정광, iron ore concentrate)를 서부지역에서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물류 루트를 변경한 바 있는데, 이 회사 대표는 이 같은 조치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북극항로 수역 확대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 참고자료

a) <https://www.rbc.ru/business/31/03/2021/60630b3e9a79478dd10d80cf>(2021.4.20. 검색)

# 러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 '25년에 11억 루블로 성장

## ■ 2025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1조 루블로 전망

- Data Insight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러시아 온라인 B2C 시장 규모는 약 2조 7,000억 루블로 약 8억 3,000만 주문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5년까지 온라인 주문 건수는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약 10조 9,000억 루블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 2020년 러시아 GDP에서 온라인 B2C 비중은 2.5%를 점유

- 러시아의 온라인 B2C 비중은 독일 2.4%, 미국 1.7%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수치를 차지함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eGrocery, ePharma, 대규모 마켓플레이스 등과 같이 러시아 온라인 B2C 시장을 선도하는 신규 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이 등장하고 있음

## ■ 소매업 시장에도 전자상거래 비중이 계속 확대될 전망

- 2020년 기준 러시아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약 8%로 2025년까지 약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러시아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약 2,118억 루블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아졌음
- 제품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구 및 가정용품이 약 246%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D.I.Y 제품이 약 158%, 아동용품이 약 140%, 건강 제품이 약 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음<sup>b)</sup>

## ■ 플랫폼 기업 발달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시장도 확대

- 해외에서 러시아 제품 구매량은 2016년 790만 건에서 2020년 2,740만 건으로 증가함

- 2020년 러시아 온라인 소매품 수출액은 약 11억 5,9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약 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최근 들어 플랫폼 경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0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수출국 중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국의 경우 2019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수출국 중 약 20.4%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가간 화물운송에 어려워지자 2020년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음
- 러시아와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의 경우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증가함

표. 러시아 전자상거래 수출국 비중

(단위: %)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벨라루스	17.5	21.8	22.3
카자흐스탄	13.7	12.9	17.7
우크라이나	6.6	4.6	5.6
미국	17.6	20.4	17.3
서유럽	10.7	10.4	10.8
이스라엘	2.0	2.2	3.0
중국	2.4	1.9	1.3
캐나다	2.2	2.3	2.2

자료: DATAinsight, eBay, 'Розничный экспорт товаров через интернет', 2021, p. 10

김은미 자료 입력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weekly\_kmi@kmi.re.kr/051-797-4942)

## 참고자료

- a) DATAinsight, 'Интернет-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2020', 2021, p. 1-117
- b) [https://logirus.ru/news/e-commerce/rossiyskiy\\_e-commerce\\_zvonko\\_nachal\\_god.html](https://logirus.ru/news/e-commerce/rossiyskiy_e-commerce_zvonko_nachal_god.html) (2021.4.16. 검색)
- c) DATAinsight, eBay, 'Розничный экспорт товаров через интернет 2020', 2021, p. 1-45





## 주요 통계



표. 2021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1.12 (+12.4%)	6.15 (-5.0)	12.27	+5.3%
북극해	2.01 (-8.0%)	5.3(-9.51%)	7.31	-9.1%
발트해	8.26(+7.4%)	9.69(-19.8%)	18,5	-9.4%
아조프-흑해	9.3 (+20.3%)	12.57(-12.7%)	21.87	-0.7%
카스피해	0.16 (-28.7%)	0.39 (-3.6%)	0.96	-14.4%
합계	30.8(+10.9%)	34.0(-13.3%)	64,8	-3.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라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29. 검색\)](https://portnews.ru/news/308733/(2021.3.29.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0029/\(2021.3.29. 검색\)](https://portnews.ru/news/310029/(2021.3.29. 검색))

표.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529,312.9	40,227.2	1,478.6	615.9	530,791.5	40,843.0
25-27	광물 제품	463,895.0	17,307.7	32,637.0	9,976.5	496,532.0	27,284.2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41,691.2	17,025.3	152.3	-	441,843.6	17,025.3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143.6	45,027.1	238.7	592.5	3,382.3	45,619.7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0.8	1,305.6	7.6	-	8.4	1,305.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48,845.3	4,994.0	146.2	13.1	48,991.5	5,007.2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141.3	35,074.9	161.7	169.7	303.0	35,244.6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13,381.5	36,120.6	82.9	2,352.6	113,464.4	38,473.2
84-90	기계류	6,589.3	306,984.9	307.3	822.7	6,896.6	307,807.6
68-71, 91-97	기타	333,706.4	34,342.4	28,376.9	385.8	362,083.3	34,728.2
	합계	1,499,016.1	521,384.4	63,436.8	14,928.9	1,562,452.9	536,313.3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

표. 2021년 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	갑각류 연체동물	68,727	141,841.8	242	1,354.4	1	40.0	-	-	68,728	141,881.8	242	1,354.4
0303	냉동수산물	60,797	61,826.8	139	795.8	1	40.0	-	-	60,798	61,866.8	139	795.8
03031	연어	994	3,326.5	-	-	-	-	-	-	994	3,326.5	-	-
030331	광어	38	169.0	-	-	-	-	-	-	38	169.0	-	-
030332	가자미	58	50.0	-	-	-	-	-	-	58	50.0	-	-
030339	기타 넙치류	70	30.3	-	-	-	-	-	-	70	30.3	-	-
030351	청어	13,479	7,748.9	-	-	-	-	-	-	13,479	7,748.9	-	-
030363	대구	2,869	8,689.8	-	-	-	-	-	-	2,869	8,689.8	-	-
0303670000	명태	36,709	33,866.5	-	-	-	-	-	-	36,709	33,866.5	-	-
0303893	농어	21	51.5	-	-	-	-	-	-	21	51.5	-	-
030391	알류	913	2,292.6	-	-	1	40.0	-	-	915	2,332.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66	351.7	-	-	-	-	-	-	266	351.7	-	-
0304	생선 필레	3,038	7,415.2	58	285.0	-	-	-	-	3,038	7,415.2	58	285.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21	29.9	22	120.8	-	-	-	-	21	29.9	22	120.8
0306	갑각류	2,771	66,403.7	17	108.4	-	-	-	-	2,771	66,403.7	17	108.4
030614, 030633, 030693	게	2,534	64,886.0	-	-	-	-	-	-	2,534	64,886.0	-	-
0307	연체동물	1,409	3,879.0	-	-	-	-	-	-	1,409	3,879.0	-	-
03072	가리비	380	562.4	-	-	-	-	-	-	380	562.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957	2,756.5	6	44.4	-	-	-	-	957	2,756.5	6	44.4
03079	기타 연체 동물	73	560.1	-	-	-	-	-	-	73	560.1	-	-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691	2,287.3	-	-	-	-	-	-	691	2,287.3	-	-
03081	해삼	8	94.6	-	-	-	-	-	-	8	94.6	-	-
03082	성게	650	2,179.1	-	-	-	-	-	-	650	2,179.1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주: 갑각류 및 연체 동물 제외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3.31. 검색))